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9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3월 17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노조파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계속 된다

154일의 농성, 전국 35개 지역의 희망버스

지난 15일은 유성지회 이정훈 지회장의 고공농성이 154일차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전국 35개 지역에서 희망버스가 유성기업으로 향한 날이었다. 3,500여명의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영동, 옥천, 아산을 돌며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범죄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눈물, 감동 그리고 승리의 희망

희망버스의 시작은 눈물이었다. 이정훈 지회장의 부인이 편지글을 읽으면서 참가자들의 안타깝게 만들었다. 27년째 유성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편이 청춘을 다 바쳐서 지키고자 했던 민주노조이기에 말리고 싶었지만 말릴 수 없었다는 부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을 숙여하게 했다. 작년 10월 13일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에 고공농성을 시작한 이정훈 지회장은 5달이 훌쩍 넘어 봄이 찾아온 지금까지도 농성을 풀지 못하고 있다.

아산공장 앞에서 열린 희망버스 문화제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와이낫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밀양 어르신들의 노래공연, 노동가수 지민주, 천안시립예술단, 꽃다지 등의 연대 공연이 계속됐다. 그러나 정작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유성지회 노동자들이 직접 준비한 그림자극과 노래 공연이었다. 유성의 투쟁상황을 그림자극으로 만들어 직접 연기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진실이 실려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내사랑 민주노조' 공연은 바라보는 이들을 감동에 젖게 했다. '내사랑 민주노조' 는 이정훈 지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밝혀 이번 희망버스의 주제곡이 된 노래이다.

멈추지 않을 희망버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희망버스 행사를 함께 한 참가자들은 이튿날 아침 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도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문제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잠시 문제 해결의 시간을 두고 2차, 3차 희망버스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여전히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유성기업에게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특검을 실시하여 범죄에 대해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공은 유성기업과 국회로 넘어갔다. 희망버스의 요구에 답을 내놓을 차례다.

노조파괴 특검 실시! 유시영 구속! 공장장 퇴진!

희망버스는 계속된다!

쟁의권 발생하니까 임금 까려고 발악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생기는 일은 언제나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복된다. 나쁜 짓은 쉽게 따라하기 마련이다. 콘티넨탈이 이번에는 유성기업에서 배웠나보다. 콘티넨탈 자본이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고자 쟁의행위 시간만큼 수당까지도 공제하겠다고 나섰다. 콘티넨탈지회에 쟁의권이 생기자 바로 이런 조치가 시작됐다.

그동안 콘티넨탈은 외출, 조퇴, 지각, 파업 등에 대해서 기본급에서만 임금을 공제했다. 그러나 콘티넨탈지회가 쟁의권을 확보하자 지난 7일 통상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임금 공제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가뜩이나 낮은 기본급 때문에 잔업, 특근으로 임금을 채우는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 번 임금 족쇄를 채워서 합법적인 쟁의행위 마저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무노동 무임금 때문에 합법적인 쟁의행위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헌법에서 쟁의행위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먹고살기 위해 한푼이 아쉬운 노동자들이 임금을 포기하면서 쟁의행위를 하기는 어렵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하위법이 막고 있는 것이다. 자본은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각종 수당까지도 임금을 까겠다고 나서고 있다. 노동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도 마음대로 누릴 수 없는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자본은 가장 치졸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임금 차별이라는 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다. 임금 차별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 까지도 막아보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노조파괴 사업장 조합원들은 3년에 걸친 임금차별을 딛고 지금까지 금속노조를 지켜오고 있다. 이런 푼돈 장난은 오히려 조합원들의 분노만 높일 뿐이라는 점을 자본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번 주 노동 뉴스는?

검찰,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전, 현직 대표이사 조사

제대로 조사할까?

한미FTA 발효 2년
철강 수출증가율 40.2% → -6.9%
자동차 수출증가율 30.5% → 17.5%
한우농가 폐업 증가

한미FTA 찬성하던 사람들 어딨지?

반도체 업종에도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

고 황유미씨를 비롯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대책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난항 예상
민주노총은 "불참" 한국노총은 "긍정"

참가해봤자 노동계는 그저 들러리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 정책 때문 그런데 노조 때리기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이 10개 국책사업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을 과도한 복리후생 탓으로 돌렸던 기재부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13일 기재부와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책사업 추진 △시설투자 확대 △서민생활 안정 △저축은행 지원 등에 의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주요 **공공기관 금융부채 증가액(167조3천억원)의 78.5%인 131조4천억원이 10개 국책사업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부채 해법은 엉뚱하게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줄이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실제 기재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에는 38개 중점관리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줄여 1천544억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기관 부채 497조1천억의 0.03%에 불과**하다. 복리후생비 감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재부가 인정했듯이 실패한 정부사업은 대부분 정부와 여당이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을 통해 이뤄졌다"며 "낙하산 기관장들은 성과급을 챙겼지만 방만경영의 멍에는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부채는 국민부담으로 남았다"고 반발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iswcool@naver.com


<3.13 유성 희망버스_그림자연극 연습>



<3.15 유성 희망버스_걸개그림>



<3.15 유성 희망버스_그림자연극 공연>


<3.15 유성 희망버스_조합원 공연>